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농민
농민
농민

2020년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(044-201-1531), 서기관 유재형(1532) / 제공일 : 5월 27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,600명 선발 - 영농창업 예정자 65.6%(전년 대비 6.4%p ↑), 청년층의 농업 유입 기대 -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2020년 ‘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’ 대상자(청년창업농) 1,600명을 선발하고, 각 시·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.

*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, 창업자금(최대 3억 원)·농지임대·영농기술 교육·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

○ 농식품부는 2018~2019년, 총 3,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, 올해 신규 선발자 1,600명을 포함하여 총 4,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.

□ 올해 사업에는 총 3,034명이 지원(경쟁률 1.9:1)하였으며,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,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.

○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,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,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,

○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·재산 수준*도 엄격히 검증하였다.

* 중위소득 120%(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% 수준) 이상은 지원 제외

< '20년 선발자 개요 >

□ 올해 선발된 1,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,

○ 시도별 인원은 전북·전남·경북·충남·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(단위: 명)
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특광역시	합계
151	82	82	175	282	270	268	170	46	74	1,600

○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,051명(65.7%), 독립경영 1년차 438명(27.4%), 2년차 76명(4.7%), 3년차 35명(2.2%)으로 나타났다.

-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'18년 42.5%, '19년 59.3%에 이어 65.7%(전년대비 6.4%p↑)로 상승하는 등, 동 사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○ 비농업계 졸업생은 1,129명(70.6%)으로 농고·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1명(29.4%)의 약 2.4배 수준이며,

○ 귀농인이 1,112명(69.5%)으로 재촌 청년 488명(30.5%)의 약 2.2배로 나타났다.

□ 주 생산(예정 포함) 품목을 보면,

○ 채소류 26%, 과수류 15.4%, 축산 15.4%, 식량작물 11%, 특용작물 5.9%, 화훼류 4.1% 순으로 나타났으며,

-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8%,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4.2%이다.

* 기타 품목: 곤충사육, 채소·과수·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등

□ 선발된 1,600명의 영농기반 마련(예정 포함) 유형을 보면,

-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(예정 포함) 청년이 789명(49.3%)이고
 -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·상속 받은(예정 포함) 청년은 327명(20.4%)이었으며,
-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,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(예정 포함) 청년은 484명(30.3%)이었다.

< 창업 및 경영안정화 지원 >

□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, 창업자금·농지임대·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.

- 우선, 선발된 1,600명 중 독립경영 1~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(4~5월분 소급지원)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, 창업예정자 1,05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.

< 영농정착지원금(생활안정자금)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>

구분	지원 1년차	지원 2년차	지원 3년차	합계
1년차	100만 원(12개월)	90(12)	80(12)	3,240(36)
2년차	90만 원(12개월)	80(12)	-	2,040(24)
3년차	80만 원(12개월)	-	-	960(12)

- 또한,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(융자 3억원 한도, 금리 2%)을 지원하고, 농지은행(www.fbo.or.kr)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, 선도농가 실습,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·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.

□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5.25일부터 6.7일까지 농업교육포털(agriedu.net)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.

-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(최장 6년),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, 의무교육,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,
- 농촌진흥청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, 비축농지 임대, 창업자금 지원,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,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.

참고

'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선발 결과

□ 지역별 선발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특광역시	합계
최종선발	151	82	82	175	282	270	268	170	46	74	1,600

□ 영농경력 등 특성별 구분

(단위 : 명)

구분			예정자	1년차	2년차	3년차	합계
영농경력별			1,051	438	76	35	1,600
성별	남성		841	372	57	28	1,298
	여성		210	66	19	7	302
계열	농업계졸업		310	132	19	10	471
	비농업계 졸업		741	306	57	25	1,129
귀농 여부	귀농		708	321	56	27	1,112
	재촌		343	117	20	8	488
영농 기반 마련	증여· 상속	전체	46	9	5	2	62
		일부	183	63	11	8	265
	부모와는 별도		500	240	35	14	789
	부모기반 없음		322	126	25	11	484
협업 경영	부부공동		146	98	20	7	271
	법인공동		57	33	5	2	97

□ 선정자의 주 생산(예정) 품목

구분	인원(명)	비율	구분	인원(명)	비고
채소(시설,노지)	416	26%	식량작물	175	11%
과수	246	15.4%	화훼	66	4.1%
축산	247	15.4%	기타(경종작물 복합 등)	227	14.2%
특용작물	95	5.9%	복합(축산+경종)	128	8%

□ 농지 등 관련 지원사업 신청 현황

구분	예정자	1년차	2년차	3년차	합계
후계농육성자금	847	290	52	22	1,211
농지 임차·매입	587	213	32	18	850